

도시건축박물관, 광화문 역사를 품다

-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 기증 받아… 개관전시 활용 계획
- 향후 소장품 구매와 함께 수증도 적극 병행해 나갈 것

□ 국토교통부는 '06년 철거된 기존 광화문의 일부 부재를 '26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기증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2m×1.5m×5m)는 '06년 경복궁 복원사업 과정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철거되었으며,
- 이후 일부 철거 부재를 소장하고 있던 (재)한울문화재단 김홍식 이사장과 제주공예박물관 양의숙 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업사업*으로 건립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개관전 전시공간 설계·시공, 소장품 확보 등), 행복청(박물관 건축)

- 광화문 철거 부재는 철근콘크리트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더 높게' 주제관 또는 건축 파사드(외벽 영상) 전시관 등 관련 전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 근대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철거된 광화문은 대부분 폐기되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어 광화문 부재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도시건축을 사랑하는 기증자의 결심으로 우리 박물관이 의미있는 콘텐츠를 확보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기증자 예우 등을 통해 소장품 기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책임자	서기관	김용수 (044-201-4836)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주무관	인병연 (044-201-4806)

